

해외로 뻗어가는 'K-마루', 공공기관 칸막이 허물고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구축한다.

- 2.5일(목), 7개 공공기관 K-마루(해외지사 일원화) 업무협약식(MOU) 체결
- LA, 하노이 등 5개 거점도시 1차 선정, 현지 진출기업 지원 효율성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업지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해외 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K-마루'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월 5일(목) K마루(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정책의 1차 선도거점 5개 도시를 선정하고 KOTRA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 (일시/장소) '26.2.5(목), 15시 /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
- ▶ (참석) 재정경제부 2차관, 공공정책국장, 산업부 무역진흥과장, 코트라, 수은, 무보, aT,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기관장
- ▶ (협약내용) K-마루 구축 관련 협약기관의 역할 K-마루의 운영 기관 간 협업 사항 등

◇ K-마루 공공기관 협업의 새로운 브랜드로 도약

'K-마루'는 한옥의 바닥 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분산된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해외지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번 통합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관 간 시너지를 통한 'K-브랜드' 강화가 기대된다.

◇ 권역별 특화 협업모델 구축으로 금융부터 기술지원까지 한곳에서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지역은 KOTRA 해외 무역관 중 여유 공간이 있고 기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주요 권역별 협업 모델은 다음과 같다.

도시	대상기관	입주시기	비고
LA	KOTRA	-	식품 유통 노하우와 마케팅 역량을 결합하여 K-푸드 및 소비재 확산을 주도하고 현지 물류 및 통관 이슈 공동 대응
	aT	'27.4월	
하노이	KOTRA	-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마케팅 원스톱 체계'를 구축
	수은	'28.2월	
	무보	'28.4월	
나이로비	KOTRA	-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도시화 수요에 맞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지원
	KIND	'26.9월	
두바이	KOTRA	-	EU·중동(기술인증):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합류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강화
	aT	'27.2월	
	산업기술시험원	'27.1월	
브뤼셀	KOTRA	-	
	산업기술진흥원	'29.1월	

※ 기관별 입주시기는 기존 사무소 임차계약 종료시점

◇ 공간 통합을 넘어 혁신 이정표로 지속 확대 추진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 금융, 기술, 인프라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기관들 역시 임차료 등 경비를 절감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허차관은 'K마루'는 단순히 공간을 합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 칸막이를 허무는 혁신의 이정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협업모델을 타 기관과 지역으로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510)
		담당자	사무관	최성진 (csj3939@korea.kr)